

<2014.08.13.~2014.08.14.>

## 전민일보

2014년 08월 14일 (목)

지역 09면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고창자봉센터 생물권 보전지역서 월2회 봉사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원을 방문하여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

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하여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102 X 179 mm

# 전주일보

2014년 08월 14일 (목)  
인물 15면

## 고창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생물보전지역 환경정화 활동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하여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하여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 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62 X 156 mm

# 전주매일

2014년 08월 14일 (목)  
지역 11면



## 고창자봉센터 · 희망나눔가족봉사단 월2회 토요일 저녁 무장요엘원 봉사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하여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하여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71 X 155 mm



#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바로알고 봉사하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해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해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해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 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 “소중한 자원 바로 알고 보호해요”

### 고창자봉센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봉사활동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해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운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해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 고창,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훈훈'

무장요엘원 방문, 샌드위치·수박화채 만들기 등 어울림 시간



고창군은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함께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하여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

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 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 갯벌, 윤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하여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종욱 기자

163 X 133 mm

##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바로 알고 봉사하자”

(아시아뉴스통신=이승희 기자)

뉴스일자: 2014년08월13일 11시17분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창군청)

전북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종균)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바로 알고 봉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과 무장요엘원이 함께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2회 토요일 저녁에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이 무장요엘원을 방문해 시설 내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서 샌드위치, 떡볶이, 팔빙수, 수박화채 등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또래끼리 마음을 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 5개소(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윤곡습지, 고인돌유적지, 동림저수지)를 방문해 해설을 듣고, 환경정화도 실시하며, 고창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의식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한, 갯벌체험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고창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조개 공예품도 만들어 보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관계자는 “민선6기 군정 슬로건으로 정해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에 따라 군민 모두가 소중한 자원을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sisure@hanmail.net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달기